生活科學研究 第24輯 2014.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4, 2014, pp.37-49

광주·전남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채소류 섭취 기호도

고영숙 · 허영란 · 정난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The Preference of Vegetables Intake in Elementary Students in Gwangju and Jeonnam

Youngsook Go · Youngran Heo · Lanhee J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reference of vegetables, and preference of kinds of vegetable food in elementary students in Gwangju and Jeonnam.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with 5^{th} and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in Gwangju and Jeonnam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362 substantial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For preference of vegetable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nese cabbage, lettuce, spinach, and stonecrop (leaf and stem vegetables) and green pumpkin, paprika, and pimiento (fruit vegetables) and the Gwangju area showed higher preference of all vegetables but stonecrop. While the Gwangju area showed the highest preference of lettuce, the Jeonnam area showed the highest preference of bean sprouts. For sex, boys' most commonly favorite vegetable was lettuce, followed by bean spouts, whereas most commonly favorite vegetable was bean spouts, followed by lettuce. While the highest preference was found in sweet potato and potato, the lowest preference was found in roots of bellflowers and lotus roots. For the preference of vegetable food according to recipe, slightly high preference was found in rice, noodles, and rice porridge (A la carte), panfried and deepfried vegetables, and kimchi. It was therefore suggested that vegetable food cooked with meat or using oils would be favorite food, compared to only vegetable food.

Key words: preference, vegetable intake, elementary students, Gwangju and Jeonnam

논문접수일 : 2015. 11. 9., 심사완료일 : 2014. 11. 31., 게재확정일 : 2014. 12. 12.

Ⅰ. 서 론

초등학교 시기는 신체적 성장과 함께 자아 개념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적절한 영양 공급은 일생의 성장 발육과 건강의 초석이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영양불량이나 과다로 인한 영양 불균형 또는 건강장애는 신체적 성장·발육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적 발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령기의 식생활 문제로는 편식, 식욕부진, 결식, 소아 비만, 체중 부족, 빈혈, 충치 등 다양한 예를 들 수 있으며, 특히 영양 불균형의 문제로 폭식이나 지나친 간식, 아침 결식, 영양방임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영양은 학생의 영양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등을 충분히 함유하는 식단, 적당한 운동과 휴식의 조화, 또 학습활동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양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이연숙 등, 2005).

식습관은 학령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확립되므로 성인이 된 후 체위나 건강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학령기의 올바른 식습관 및 생활양식의 습득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영양소의 섭취는 식습관이나 식생활 형태에 의해서 좌우된다(황금희 등, 2001; 최은희, 2002).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식사 습관이 불규칙하고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편식의 경향이 심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식사 태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명희 등, 2002). 어릴 때 식품에 대한 경험은 식품에 대한 기호 및 식사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생동안의 영양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Birch L, 1987). 일단 형성된 성인의 식습관은 쉽게 교정하기 어려우므로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식생활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수진, 2000).

또한 올바른 영양 지식 및 바람직한 식생활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초등학생의 영양관리를 위한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식생활 지도가 필수적이며,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혜상 등, 2005).

채소 섭취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 채소 기피 관련 연구에서 이민정(2009)은 채소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 '맛'이 남·여학생 모두 70% 이상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씹는 느낌', '먹어보지 않아서', '모양이나 색깔', 냄새 순으로 나타났으며, 박미숙(2008)의 연구에서도 학교급식에서 채소류를 남기는 이유를 남녀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맛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양이 많아서, 싫어하는 음식이라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라서, 습관적으로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학생들이 채소류에 대한 메뉴를 맛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어 다양한 조리법의 개발과 교육을 통해 식이섬유와 비타민 및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류 섭취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였다. 구언희와 서정숙(2005), 김말분 등(1997)의 연구에서는 영양지식이 부족하고 식행동이 좋지 못한 초등학생이 주로 채소를 기피하였으며, 이 학생들은 비타민 A, 엽산, 칼슘, 철분, 아연 등 미량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학교급식 잔반에서 발생하는 영양 손실에 관한 연구에서 안주연과 이해상(2002)은 계획된 메뉴의 비타민 A가 영양섭취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섭취되지 않고 버려진 잔반의 효과가 더해져 학생들의 실제 섭취량은 영양섭취 기준에 미달된다고 지적하였고, 김소희(1999)의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초등학교 급식소의 식사 후 잔반은 채소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으며, 김경미와 이심열(2003)의 연구에서는 채소음식물 잔반은 대부분 조리과정 중의 폐기보다는 이미 조리된 음식의 형태로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무영과 민혜선(2000)은 채소 섭취는 귀중한 식량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오염원을 감소시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일부 농어촌과 도시 청소년들의 식행동 특성 및 식품기호도 조사에서 김말분 등(1997)은 거주지역과 남녀 학생간에 식품 기호도의 차이가 나타났고, 초등학생에서 문제시 되는 영양소 즉 지방, 단순당,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나 과일의 섭취를 높이는 식생활 교육과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미경(2007)의 경기도지역 도시형과 농촌형 초등학교 학생들의 채소류와 어패류의 조리법에 따른 식품기호도 비교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품과 조리법을 이용하여 선호도가 낮은 식품의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학부모와 연계한 교육 실시로 학부모들의 영양지식을 향상시켜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채소와 채소음식에 대한 기호도의 차이를 지역별, 성별로 비교, 조사함으로써 학교 급식 실시시 식단 작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초등학생의 채소에 대한 식생활 의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남·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5학년 10명과, 6학년 10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 응답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항이나 용어 등은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는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광주와 전남지역 소재 2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에게 410부를 배부하고 410부를 회수하여(회수율 : 100%)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48부를 제외한 총 36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김미숙, 2009; 안유경, 노희경, 2009; 이미경, 2007; 이민정, 2009; 장미나, 2008)의 자료를 참고로 본 조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 초등학생의 채소 종류에 기호도, 채소음식 종류에 대한 기호도를 측정하는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사항으로 거주 지역, 성별, 학년, 부모님의 연령과 교육 정도, 직업에 대해 조사하였고, 가족의 주거형태, 월수입, 가족 형태 등 총 9문항을 조사하였다.

초등학생의 채소 종류에 대한 기호도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주요 조리 재료로 사용되는 채소로 정하였고, 양념류로 사용되는 채소는 제외하였으며 계절에 한시적으로 생산되는 계절 채소도 조사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채소종류는 엽경채류 16종, 근채류 6종, 과채류 6종, 버섯류 6종 등 총 34종으로 구성하였다.

초등학생의 채소음식 종류에 대한 기호도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주 접하는 채소음식으로 정하였다. 채소음식 종류는 밥·국수·죽류 8종, 국·탕·찌개류 14종, 볶음류 4종, 찜·조림류 10종, 부침·튀김류 15종, 무침·샐러드류 16종, 김치류 6종 등 총 73종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8.0 for Window)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채소 종류에 대한 기호도와 채소음식 종류에 대한 기호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채소 종류 및 채소음식 종류에 따른 지역별, 성별 기호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결과는 〈표 1〉과 같다.

거주 지역은 광주·전남지역이 각각 181명(50.0%)으로 같은 비율이었고, 5학년이 광주지역 64명(35.4%), 전남지역 84명(46.4%), 6학년이 광주지역 117명(64.6%), 전남지역 97명(53.6%)이었다. 남학생은 광주지역 75명(41.4%), 전남지역 81명(44.8%), 여학생은 광주지역 106명(58.6%), 전남지역 100명(55.2%)이었다.

아버지 연령은 만 41세~45세가 광주지역 108명(59.7%), 전남지역 75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만 36세~40세가 광주지역 37명(20.4%), 전남지역 41명(22.7%), 만 46세~50세가 광주지역 27명(14.9%),

〈표 1〉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N=362, N(%)

변인	구분	광주	전남	전체	변인	구분	광주	전남	전체
거주지	거주지	181(50.0)	181(50.0)	362(100)	성별	남학생	75(41.4)	81(44.8)	156(43.1)
학년	5학년	64(35.4)	84(46.4)	148(40.9)		여학생	106(58.6)	100(55.2)	206(56.9)
	6학년	117(64.6)	97(53.6)	214(59.1)					
부 연령	만 35세 미만	4(2.2)	4(2.2)	8(2.2)	모 연령	만 35세 미만	13(7.2)	16(8.8)	29(8.0)
	만 36세~40세	37(20.4)	41(22.7)	78(21.5)		만 36세~40세	89(49.2)	92(50.8)	181(50.0)
	만 41세~45세	108(59.7)	75(41.4)	183(50.6)		만 41세~45세	65(35.9)	53(29.3)	118(32.6)
	만 46세~50세	27(14.9)	43(23.8)	79(19.3)		만 46세~50세	12(6.6)	18(9.9)	30(8.3)
	만 51세 이상	5(2.8)	18(9.9)	23(6.4)		만 51세 이상	2(1.1)	2(1.1)	4(1.1)
부 교육 정도	중학교 졸업 이하	2(1.1)	18(9.9)	20(5.5)	모 교육 정도	중학교 졸업 이하	2(1.1)	14(7.7)	16(4.4)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21.5)	85(47.0)	124(34.3)		대학교 졸업 이하	71(39.2)	93(51.4)	164(45.3)
	대학교 졸업 이하	84(46.4)	67(37.0)	174(48.1)		대학교 졸업	84(46.4)	62(34.3)	146(40.3)
	대학원 졸업	24(13.3)	11(6.1)	44(12.2)		대학원 졸업	24(13.3)	12(6.6)	36(9.9)
부 직업	전문직	10(5.5)	3(1.7)	13(3.6)	모 직업	전문직	12(6.6)	16(8.8)	28(7.7)
	사무직	106(58.6)	55(30.4)	161(44.5)		사무직	39(21.5)	32(17.7)	71(19.6)
	자영업	39(21.5)	36(19.9)	75(20.7)		자영업	34(18.8)	26(14.4)	60(16.6)
	농수산업	4(2.2)	32(17.7)	36(9.9)		농수산업	0(0.0)	18(9.9)	18(5.0)
	생산직	15(8.3)	44(24.3)	59(16.3)		생산직	7(3.9)	8(4.4)	15(4.1)
	주부, 집안일	7(3.9)	11(6.1)	18(5.0)		주부, 집안일	89(49.2)	81(44.8)	170(47.0)
주거 형태	단독주택	6(3.3)	118(65.2)	124(34.3)	가족 월수입	100만원 이하	11(6.1)	18(9.9)	29(8.0)
	아파트	165(91.2)	42(23.2)	207(57.2)		101~200만원	20(11.0)	64(35.4)	84(23.2)
	연립, 빌라, 상가	10(5.5)	21(11.6)	31(8.6)		201~300만원	51(28.2)	47(26.0)	98(27.1)
가족 형태	핵가족	168(92.8)	143(79.0)	311(85.9)		301~400만원	49(27.1)	32(17.7)	81(22.4)
	확대가족	12(6.6)	38(21.0)	51(14.1)		401만원 이상	50(27.6)	20(11.0)	70(19.3)

전남지역 43명(23.8%), 만 51세 이상이 광주지역 5명(2.8%), 전남지역 18명(9.9%), 만 35세 미만이 광주·전남지역 각 4명(2.2%)순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만 36세~40세가 광주지역 89명(49.2%), 전남지역 92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만 41세~45세가 광주지역 65명(35.9%), 전남지역 53명(29.3%), 만 35세 미만인 경우가 광주지역 13명(7.2%), 전남지역 16명(8.8%), 만 46세~50세가 광주지역 12명(6.6%), 전남지역 18명(9.9%), 만 51세 이상이 광주지역 2명(1.2%), 전남지역 2명(1.1%) 순이었다.

아버지의 교육 정도는 광주지역은 대학교 졸업이 84명(46.4%), 전남지역은 고등학교 졸업이 85명(47.0%)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역은 고등학교 졸업이 39명(21.5%), 대학원 졸업이 24명(13.3%), 중학교 졸업 이하가 2명(1.1%) 순이었다. 전남지역은 대학교 졸업이 67명(37.0%), 중학교 졸업 이하가 18명(9.9%), 대학원 졸업 11명(6.1%)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광주지역이 대학교 졸업이 84명(46.4%), 전남지역은 고등학교 졸업이 93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역은 고등학교 졸업이 71명

(39.2%), 대학원 졸업이 24명(13.3%), 중학교 졸업 이하가 2명(1.1%) 순이었고, 전남지역은 대학교 졸업이 62명(34.3%), 중학교 졸업 14명(7.7%), 대학원 졸업 12명(6.6%)순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은행원 등)이 광주지역이 106명(58.6%), 전남지역은 55명(30.4%)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역은 자영업(사업, 판매, 서비스업 등)이 39명(21.5%),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사 등)이 10명(5.5%), 생산직(근로자, 기능공, 운전기사 등)이 15명(8.3%), 집안일이 7명(3.9%), 농수산업(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이 4명(2.2%)이었으며, 전남지역은 생산직(근로자, 기능공, 운전기사 등)이 44명(24.3%), 자영업(사업, 판매, 서비스업 등)이 36명(19.9%), 농수산업(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이 32명(17.7%), 집안일이 11명(6.1%),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사 등)이 3명(1.7%)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집안일에서 광주지역이 89명(49.2%), 전남지역은 81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지역은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은행원 등)이 39명(21.5%), 자영업(사업, 판매, 서비스업 등)이 34명(18.8%),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사 등)이 12명(6.6%), 생산직(근로자, 기능공, 운전기사 등)이 7명(3.9%)이었으며 전남지역은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은행원 등)이 32명(17.7%), 자영업(사업, 판매, 서비스업 등)이 26명(14.4%), 농수산업(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이 18명(9.9%),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사 등)이 16명(8.8%), 생산직(근로자, 기능공, 운전기사 등)이 8명(4.4%)이었다.

주거형태에서 광주지역은 아파트가 165명(91.2%)이었고, 전남지역은 단독주택이 118명 (65.2%)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역은 연립, 빌라, 상가가 10명(5,5%), 단독주택이 6명 (3.3%)이었으며, 전남지역은 아파트 42명(23.2%), 연립, 빌라, 상가가 21명(11.6%)이었다.

가족의 한 달 총 수입에서 광주지역은 201~300만원이 51명(28.2%), 전남지역은 101~200만원 64명(35.4%)이 가장 많았고, 광주지역은 401만원 이상이 50명(27.6%), 301~400만원이 49명(27.1%), 101~200만원이 20명(11.0%), 100만원 이하가 11명(6.1%)이었으며, 전남지역은 201~300만원 47명(26.0%), 301~400만원 32명(17.7%), 401만원 이상이 20명(11.0%), 100만원 이하가 18명(9.9%)이었다.

가족 형태에서 핵가족이 광주지역은 168명(92.8%), 전남지역은 143명(79.0%)으로 가장 많았고, 확대가족은 광주지역이 12명(6.6%), 전남지역은 38명(21.0%)이었다.

2. 초등학생의 채소 종류에 대한 기호도

초등학생의 채소 종류에 대한 변인별 기호도 결과는 〈표 2〉와 같다.

초등학생의 기호도는 엽경채류에서 배추($p<0.05$), 상추($p<0.001$), 시금치($p<0.01$), 돌나물($p<0.05$)이 광주・전남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남학생과 여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초등학생의 채소 종류에 대한 기호도는 '배추'에서 광주지역 3.77, 전남지역은 3.57이었고 '상추'는 광주지역 4.05 전남지역 3.76이었으며, '시금치'는 광주지역 3.45, 전남지역 3.14로 광주지역이 전남지역보다 배추, 상추, 시금치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나물'에서 광주지역 2.38, 전남지역 2.65로 전남지역이 광주지역보다 돌나물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엽경채류에서 광주지역에서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채소는 상추, 콩나물, 배추, 시금치, 양배추 순이었으며. 전남지역은 콩나물, 상추, 배추, 양배추, 깻잎 순으로 좋아하였다. 강윤선(2003)의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학생은 콩나물, 상추, 배추, 시금치 깻잎 순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지역 학생은 콩나물, 상추, 깻잎, 시금치, 배추 순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소 달랐다. 기호도가 가장 낮은 엽경채류는 광주지역이 아욱과 돌나물이었으며, 전남지역은 아욱이었다.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기호도에서 남학생이 가장 좋아 하는 엽경채류는 상추, 콩나물, 배추, 양배추, 시금치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콩나물, 상추, 배추, 깻잎, 양배추 순이었다. 기호도가 가장 낮은 엽경채류는 남・여학생 모두 아욱이었다.

근채류에서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채소는 고구마($p<0.01$), 연근($p<0.05$)에서 남・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광주와 전남지역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채류에서 '고구마'는 남학생 4.03,

〈표 2〉 초등학생의 채소 종류에 대한 변인별 기호도

M±SD

항목		광주	전남	t-value	남학생	여학생	t-value
엽경채류	배추	3.77±0.87	3.57±0.80	2.259*	3.67±0.89	3.67±0.81	-0.036
	상추	4.05±0.87	3.76±0.85	3.229***	3.94±0.92	3.87±0.84	0.738
	시금치	3.45±1.06	3.14±0.95	2.922**	3.40±1.10	3.21±0.95	1.678
	브로콜리	3.19±1.28	3.09±1.15	0.763	3.06±1.18	3.20±1.24	-1.104
	양배추	3.55±1.09	3.42±1.01	1.231	3.56±1.08	3.43±1.02	1.153
	콩나물	3.95±0.94	3.90±0.96	0.509	3.91±1.02	3.94±0.89	-0.262
	숙주나물	2.94±1.25	2.96±1.08	-0.127	2.97±1.29	2.94±1.08	-0.208
	미나리	2.74±1.18	2.87±1.13	-1.114	2.92±1.19	2.72±1.12	-1.599
	깻잎	3.42±1.31	3.38±1.22	0.293	3.36±1.31	3.44±1.23	-0.580
	아욱	2.38±1.20	2.42±1.05	-0.340	2.46±1.22	2.36±1.06	0.848
	부추	3.35±1.22	3.11±1.10	1.909	3.18±1.22	3.27±1.12	-0.766
	양상추	3.34±1.12	3.19±1.00	1.334	3.33±1.16	3.22±0.99	0.891
	쑥갓	2.54±1.17	2.61±1.05	-0.589	2.69±1.17	2.49±1.06	1.649
	돌나물	2.38±1.21	2.65±1.08	-2.086*	2.53±1.14	2.50±1.17	0.243
	열무	3.48±1.25	3.25±1.16	1.772	3.32±1.29	2.50±1.17	-0.655
	마늘쫑	2.71±1.36	2.55±1.21	1.156	2.70±1.40	2.57±1.20	0.934
근채류	무	3.42±1.13	3.24±1.10	1.565	3.35±1.21	3.32±1.05	0.294
	우엉	3.05±1.29	2.84±1.15	1.584	3.06±1.26	2.86±1.18	1.484
	고구마	4.18±1.00	4.22±0.95	0.434	4.03±1.15	4.33±0.80	-2.743**
	도라지	2.78±1.20	2.85±1.16	-0.562	2.93±1.22	2.72±1.14	1.745
	연근	2.85±1.32	2.99±1.19	-1.058	3.11±1.31	2.77±1.20	2.531*
	감자	4.15±1.04	4.16±0.91	-0.108	4.09±1.11	4.21±0.85	-1.083
과채류	애호박	3.56±1.13	3.18±1.13	3.133**	3.42±1.20	3.32±1.11	0.810
	단호박	3.71±1.18	3.49±1.19	1.731	3.57±1.26	3.62±1.14	-0.395
	오이	3.62±1.24	3.76±1.10	-1.129	3.48±1.30	3.85±1.06	-2.911**
	가지	2.74±1.18	2.71±1.20	0.190	2.81±1.30	2.66±1.10	1.099
	파프리카	2.98±1.32	2.68±1.26	2.198*	2.90±1.33	2.78±1.28	0.847
	풋고추	2.97±1.32	2.73±1.18	1.825	3.13±1.33	2.65±1.16	3.600***
버섯류	표고버섯	3.07±1.31	2.98±1.18	0.676	3.23±1.35	2.88±1.15	2.601*
	느타리버섯	3.12±1.31	3.07±1.23	0.366	3.28±1.36	2.96±1.17	2.332*
	양송이	3.20±1.31	3.14±1.22	0.445	3.23±1.36	3.12±1.20	0.796
	팽이버섯	3.61±1.31	3.54±1.31	0.479	3.53±1.39	3.61±1.24	-0.601
	새송이버섯	3.21±1.37	3.08±1.27	0.946	3.27±1.41	3.06±1.25	1.505
	목이버섯	2.62±1.34	2.71±1.20	-0.690	2.84±1.39	2.53±1.16	2.165*

* $p<0.05$, ** $p<0.01$, *** $p<0.001$

여학생이 4.33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구마를 더 좋아하였다. '연근'은 남학생 3.11, 여학생 2.7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좋아하였다. 근채류에서 남학생은 감자, 여학생은 고구마를 가장 좋아하였고, 도라지는 남·여학생 무두 기호도가 낮았다.

과채류 기호도는 애호박($p<0.01$), 파프리카($p<0.05$)에서 광주·전남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오이($p<0.01$), 풋고추($p<0.001$)에서 남·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애호박은 광주지역 3.56, 전남지역 3.18 이었고, '파프리카'는 광주지역 2.98 전남지역 2.68로 애호박과 파프리카는 광주지역 학생이 전남지역 학생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단호박, 오이, 애호박 순으로 좋아하였으며, 전남지역은 오이, 단호박, 애호박 순으로 좋아하였다.

'오이'가 남학생 3.48, 여학생 3.85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오이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풋고추'는 남학생 3.13, 여학생 2.65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좋아하였다. 가장 좋아하는 과채류는 남학생은 단호박이었고, 여학생은 오이였다. 안유경과 노희경(2009) 연구의 채소 기호도에서 오이와 단호박의 기호도가 다른 과채류에 비해 남·여학생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는 비슷하였다.

버섯류의 기호도에서는 표고버섯($p<0.05$), 느타리버섯($p<0.05$), 목이버섯($p<0.05$)에서 남·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광주·전남지역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버섯류는 광주·전남지역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팽이버섯을 가장 좋아하였고 목이버섯의 기호가 가장 낮았다.

본 연구 결과는 대체로 가정이나 학교급식에서 자주 접하는 채소의 기호도가 높았는데, 이는 강윤선(2003), 권남숙, 고봉경(2005), 이수현(2007)의 연구에서 학교급식에서 많이 접하는 채소들이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3. 초등학생의 채소음식 종류에 대한 기호도

초등학생의 채소음식 종류에 대한 변인별 기호도 결과는 <표 3>과 같다.

초등학생의 채소음식 종류에 대한 기호도는 밥·국수·죽류에서는 쇠고기야채죽($p<0.01$)이 광주·전남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여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쇠고기야채죽은 광주지역이 3.89, 전남지역이 3.48로 광주지역 학생이 전남지역 학생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탕·찌개류에 대한 기호도는 쇠고기무국($p<0.01$), 추어탕($p<0.01$)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쇠고기버섯국($p<0.05$), 추어탕($p<0.001$), 쇠고기야채찌개($p<0.01$)에서 남·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쇠고기무국은 광주지역 3.68, 전남지역 3.34, 추어탕은 광주지역 2.87, 전남지역 3.27로 쇠고기무국은 광주지역이 전남지역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어탕은 전남지역이 광주지역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김치찌개(돈육, 참치), 콩나물국 순으로 가장 좋아하였으며, 광주지역은 추어탕, 전남지역은 아욱된장국의 기호가 가장 낮았다. 성별 간에는 쇠고기버섯국이 남학생 3.50, 여학생 3.24, 추어탕은 남학생 3.37, 여학생 2.84, 쇠고기야채찌개는 남학생 3.62, 여학생 3.26으로 쇠고기버섯국, 추어탕, 쇠고기야채찌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탕·찌개류에서 기호가 가장 낮은 음식은 남학생은 아욱된장국, 여학생은 추어탕이었다.

볶음류에 대한 기호도는 성별에 따라 가지볶음(p,0.05)에서 남·여학생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거주 지역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지볶음은 남학생 2.91, 여학생 2.63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찜·조림류에 대한 기호도에서는 연근조림($p<0.01$), 진미채우엉조림($p<0.05$)에서 광주·전남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여학생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근조림은 광주지역 2.57, 전남지역 2.93, 진미채우엉조림은 광주지역 2.52, 전남지역 2.83으로 연근조림과 진미채우엉조림은 전남지역 학생이 광주지역 학생보다 더 좋아하였다.

부침, 튀김류 채소음식 기호도에서는 거주 지역별로 야채불고기피자($p<0.05$), 버섯불고기 피자($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야채불고기피자는 광주지역이 4.29, 전남지역은 4.03, 버섯불고기피자는 광주지역이 4.22,

〈표 3-1〉 초등학생의 채소음식 종류에 대한 변인별 기호도

M±SD

항 목		광 주	전 남	t-value	남학생	여학생	t-value
밥·국수·죽류	야채볶음밥	3.92±1.02	3.93±1.05	-0.096	3.96±1.15	3.90±0.93	0.522
	콩나물비빔밥	3.88±1.02	3.99±0.99	-1.045	3.92±1.15	3.94±0.88	-0.164
	삼색나물비빔밥	3.31±1.25	3.52±1.18	-1.600	3.51±1.38	3.35±1.08	1.192
	새싹비빔밥	3.56±1.27	3.54±1.19	0.167	3.57±1.36	3.54±1.12	0.226
	열무비빔국수	3.88±1.14	3.76±1.12	1.001	3.77±1.28	3.87±1.00	-0.748
	야채쫄면	3.77±1.15	3.77±1.07	-0.026	3.74±1.19	3.79±1.05	-0.352
	쇠고기야채죽	3.89±1.15	3.48±1.21	3.179**	3.56±1.26	3.78±1.14	-1.676
	해물버섯죽	3.22±1.31	3.07±1.24	1.100	3.19±1.33	3.10±1.24	0.629
국·탕·찌개류	시래기된장국	3.39±1.20	3.41±1.17	-0.029	3.44±1.23	3.36±1.14	0.629
	팽이버섯된장국	3.56±1.22	3.44±1.15	0.946	3.55±1.23	3.45±1.16	0.766
	쇠고기버섯국	3.38±1.19	3.33±1.14	0.439	3.50±1.20	3.24±1.12	2.084*
	돼지뼈시래기국	3.09±1.34	3.27±1.15	-1.298	3.19±1.30	3.18±1.22	0.034
	감자된장국	3.90±1.07	3.73±1.03	1.527	3.82±1.09	3.81±1.02	0.102
	쇠고기무국	3.68±1.18	3.34±1.16	2.758**	3.55±1.25	3.48±1.12	0.478
	아욱된장국	2.99±1.34	2.74±1.28	1.672	2.80±1.37	2.92±1.27	-0.813
	콩나물국	3.92±1.06	3.83±1.06	0.804	3.82±1.15	3.92±0.98	-0.925
	북어무국	2.93±1.31	2.86±1.23	0.512	2.90±1.31	2.89±1.24	0.117
	쇠고기숙주국	3.10±1.32	3.11±1.21	-0.126	3.26±1.30	2.98±1.22	1.985
	오리탕	3.86±1.18	3.64±1.22	1.676	3.78±1.25	3.73±1.17	0.369
	추어탕	2.87±1.43	3.27±1.28	-2.753**	3.37±1.35	2.84±1.33	3.654***
	쇠고기야채찌개	3.42±1.33	3.41±1.22	0.086	3.62±1.32	3.26±1.21	2.601**
	김치찌개	4.39±0.92	4.20±0.97	1.839	4.27±1.02	4.31±0.89	-0.396
볶음류	감자채볶음	3.90±1.16	3.77±1.10	1.099	3.74±1.22	3.90±1.06	-1.314
	애호박볶음	3.27±1.32	3.06±1.21	1.555	3.15±1.41	3.18±1.15	-0.217
	가지볶음	2.79±1.34	2.72±1.24	0.512	2.91±1.36	2.63±1.23	1.992*
	세송이버섯볶음	3.16±1.35	2.88±1.29	1.943	3.11±1.34	2.95±1.31	1.072
찜·조림류	깻잎찜	3.01±1.41	3.20±1.23	-1.279	3.10±1.36	3.11±1.29	-0.100
	해물콩나물찜	3.10±1.33	3.16±1.32	-0.421	3.08±1.42	3.18±1.24	-0.712
	단호박찜	3.53±1.31	3.30±1.31	1.581	3.27±1.43	3.53±1.20	-1.849
	양배추찜/양념장	3.42±1.30	3.19±1.24	1.736	3.26±1.38	3.34±1.19	-0.554
	연근조림	2.57±1.29	2.93±1.32	-2.575**	2.84±1.37	2.68±1.27	1.124
	진미채우엉조림	2.52±1.24	2.83±1.20	-2.268*	2.72±1.36	2.64±1.12	0.631
	감자생선조림	3.39±1.19	3.33±1.20	0.489	3.40±1.34	3.34±1.06	0.454
	닭고기감자조림	4.07±1.08	3.99±1.05	0.746	4.05±1.15	4.02±0.10	0.228
	마늘쫑조림	2.63±1.29	2.75±1.26	-0.916	2.79±1.41	2.62±1.16	1.203
	무생선조림	2.96±1.25	2.98±1.27	-0.124	3.01±1.40	2.94±1.14	0.516

* p<0.05, ** p<0.01, *** p<0.001

<표 3-2> 초등학생의 채소음식 종류에 대한 변인별 기호도

M±SD

항 목		광 주	전 남	t-value	남학생	여학생	t-value
부침 · 튀김류	애호박전	3.28±1.42	3.23±1.12	0.365	3.31±1.22	3.19±1.30	0.878
	깻잎고기전	3.39±1.42	3.18±1.19	1.421	3.30±1.31	3.25±1.28	0.409
	야채달걀말이	4.071±.08	3.94±0.97	1.211	4.03±1.03	3.96±1.01	0.681
	부추새우살전	3.08±1.43	2.98±1.13	0.658	3.06±1.27	2.99±1.28	0.527
	시금치해물전	3.06±1.41	2.84±1.15	1.543	2.96±1.30	2.92±1.24	0.261
	감자전	3.97±1.24	3.99±0.95	-0.179	4.03±1.08	3.94±1.09	0.845
	고구마전	3.95±1.30	3.87±1.04	0.676	3.88±1.22	3.93±1.10	-0.389
	버섯해물전	3.38±1.48	3.09±1.19	1.867	3.27±1.35	3.18±1.32	0.600
	고구마튀김	4.21±1.11	4.27±0.88	-0.582	4.27±0.98	4.22±0.99	0.497
	감자튀김	4.27±1.04	4.24±0.86	0.351	4.31±0.92	4.19±0.94	1.252
	야채새우튀김	3.74±1.34	3.81±1.16	-0.478	3.87±1.23	3.69±1.24	1.304
	가지튀김	3.05±1.53	2.74±1.25	1.937	2.94±1.47	2.81±1.30	0.815
	야채불고기피자	4.29±1.09	4.03±1.07	2.244*	4.18±1.04	4.11±1.13	0.605
	버섯불고기피자	4.22±1.13	3.91±1.17	2.441*	4.11±1.11	3.98±1.21	1.021
	고구마피자	4.31±1.06	4.21±0.96	0.905	4.28±1.02	4.23±0.99	0.516
무침 · 샐러드류	쑥갓나물	2.78±1.30	2.87±1.25	-0.597	2.84±1.41	2.81±1.16	0.223
	상추겉절이	3.20±1.27	3.22±1.29	-0.597	3.06±1.43	3.32±1.14	-1.893
	오이부추생채	2.97±1.30	2.86±1.15	-0.102	2.80±1.31	3.01±1.15	-1.516
	숙주나물무침	2.99±1.28	2.92±1.19	0.796	3.00±1.34	2.92±1.15	0.614
	콩나물무침	3.55±1.23	3.54±1.20	0.541	3.41±1.36	3.66±1.11	-1.882
	무생채	2.99±1.28	3.02±1.22	0.096	2.91±1.31	3.08±1.20	-1.266
	참나물무침	2.88±1.34	2.97±1.16	-0.218	3.02±1.37	2.86±1.15	1.185
	팽이버섯초무침	2.82±1.31	2.87±1.20	-0.627	2.97±1.36	2.74±1.16	1.634
	청경채된장무침	2.80±1.31	2.85±1.24	-0.395	3.01±1.38	2.68±1.17	2.322*
	돈육볶음/상추쌈	3.97±1.10	4.05±1.03	-0.331	4.09±1.13	3.95±1.01	1.181
	돌나물배초무침	2.75±1.28	2.96±1.23	-0.752	2.85±1.36	2.86±1.17	-0.101
	브로콜리숙회/초장	3.31±1.32	3.28±1.28	-1.459	3.24±1.30	3.34±1.29	-0.689
	오이/된장무침	3.49±1.33	3.44±1.17	0.198	3.38±1.33	3.53±1.19	-1.061
	야채샐러드	3.92±1.22	3.47±1.15	0.413	3.58±1.34	3.78±1.09	-1.577
	닭가슴살야채샐러드	3.97±1.18	3.60±1.19	3.515***	3.78±1.34	3.79±1.08	-0.148
	양상추샐러드	3.79±1.14	3.55±1.17	2.854**	3.59±1.31	3.74±1.03	-1.131
김치류	배추김치	3.96±1.02	4.02±0.94	2.009*	4.01±1.04	3.97±0.93	0.452
	깍두기	3.94±1.09	3.87±1.06	-0.591	3.88±1.19	3.93±0.98	-0.456
	열무김치	3.84±1.12	3.88±1.08	-0.318	3.86±1.18	3.85±1.04	0.096
	경종배추겉절이	3.28±1.36	3.25±1.26	0.161	3.29±1.39	3.24±1.25	0.345
	깻잎김치	3.56±1.30	3.47±1.30	0.657	3.50±1.35	3.52±1.26	-0.185
	오이부추김치	3.46±1.35	3.36±1.23	0.765	3.33±1.39	3.47±1.20	-0.922

* p<0.05, ** p<0.01, *** p<0.001

전남지역은 3.91로 야채불고기피자와 버섯불고기피자는 광주지역 학생이 전남지역 학생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침·튀김류는 지역과 성별에 관계없이 부추새우살전과 시금치해물전, 가지튀김을 제외하고 다른 채소음식에 비해 기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부침, 튀김류에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현대인의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외식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또는 외식을 할 때 자주 접해보는 음식을 더 좋아하고, 유지를 이용한 채소음식이나 육류 등의 다른 재료와 혼합한 음식을 좋아하여 신세대의 채소음식 기호를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박미숙(2008)의 연구에서는 육류가 채소와 혼합되었을 때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생들 대부분이 육류 반찬을 좋아하였으며 채소 단독 재료로 만든 음식은 선호도가 낮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무침·샐러드류에 대한 기호도는 거주 지역별로 가슴살야채샐러드($p<0.001$), 양상추샐러드 ($p<2.854$)에서 광주·전남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 간에는 청경채된장무침에서 남·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닭가슴살야채샐러드는 광주지역 3.97, 전남지역 3.60, 양상추샐러드에서 광주지역 3.79, 전남지역 3.55로 닭가슴살야채샐러드와 양상추샐러드는 광주지역 학생이 전남지역 학생보다 더 좋아하였다. 광주지역은 닭가슴살야채샐러드, 돈육볶음(상추쌈), 야채샐러드, 양상추샐러드 순으로 기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은 돈육볶음(상추쌈), 닭가슴살 야채샐러드, 양상추샐러드 순으로 기호가 높게 나타났다. 무침·샐러드류에서 거주 지역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채소류를 양념과 함께 무치는 음식보다는 육류 등 다른 음식과 같이 섞어서 만든 음식이나 소스를 곁들이는 채소음식에서 기호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치류 채소음식 기호도는 거주 지역별로 배추김치($p<0.05$)에서 광주·전남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배추김치는 광주지역 3.96, 전남지역 4.02로 전남지역이 광주지역보다 더 좋아하였다. 김치류는 지역과 성별에 관계없이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순으로 좋아하였다.

초등학생의 채소 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거주 지역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부침이나 튀김류에 대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나물이나 무침보다는 소스를 곁들여 먹는 음식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무침, 샐러드를 좋아하였다. 강윤선(2003)의 연구에서 나물류가 그리 낮지 않은 기호도를 보였다는 결과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은 퓨전음식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다양한 샐러드소스 개발, 동·서양의 음식이 서로 어우러진 새로운 음식의 개발, 세계 여러나라 음식의 유입 등 외식의 기회가 늘어난 식생활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음식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지방, 단순당, 나트륨 섭취가 증가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채소섭취 증가에 기여 할 수 있는 새로운 음식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김치는 우리 전통음식문화의 대표적인 채소음식으로 건강식품으로 영양효과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김치류의 개발과 자주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식생활 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 초등학생의 채소 종류에 대한 기호도, 채소음식 종류에 대한 기호도를 지역별, 성별로 분석하여 학교 급식 실시시 식단 작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채소와 채소 음식에 대한 관심과 섭취 증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362명을 대상으로 채소 종류에 대한 기호도, 채소음식 종류에 대한 기호도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채소에 대한 기호도 차이는 거주지역간에 엽경채류에서 배추($p<0.05$), 상추($p<0.001$), 시금치 ($p<0.01$), 돌나물($p<0.05$), 과채류에서 애호박($p<0.01$), 파프리카·

피망($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돌나물을 제외한 채소는 모두 광주지역의 기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상추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전남지역은 콩나물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상추, 콩나물 순으로 기호도가 나타났고, 여학생은 콩나물, 상추 순으로 기호도가 나타났다. 지역 및 성별에 따라서 기호도가 가장 높은 채소는 고구마, 감자이었고, 도라지, 연근은 기호도가 가장 낮았으며 고구마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섯류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남・여학생 모두 팽이버섯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채소 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거주 지역별로 밥・국수・죽류에서 쇠고기야채죽($p<0.01$), 국・탕・찌개류에서 쇠고기무국($p<0.01$), 추어탕($p<0.01$), 찜・조림류에서 연근조림($p<0.01$), 진미채 우엉조림($p<0.05$), 부침・튀김류에서는 야채불고기피자($p<0.05$), 버섯불고기피자($p<0.05$), 무침・샐러드류에서는 닭가슴살야채샐러드($p<0.001$), 양상추샐러드($p<0.01$), 김치류에서는 배추김치 ($p<0.05$)에서 광주・전남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쇠고기야채죽과 쇠고기무국은 광주지역이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추어탕, 연근조림, 진미채우엉조림은 전남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국・탕・찌개류에서 쇠고기버섯국($p<0.05$), 추어탕($p<0.001$), 쇠고기 야채찌개($p<0.01$), 볶음류에서는 가지볶음($p<0.05$), 무침・샐러드류에서는 청경채된장무침($p<0.05$)에서 남・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채소음식에서 조리방법에 따른 기호도는 거주 지역별,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일품음식인 밥・국수・죽류와, 부침・튀김류, 김치류에서 다소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원재료인 채소만으로 만든 음식보다는 육류와 함께 조리한 음식이나 유지류를 이용한 음식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초등학생들의 채소 섭취를 위한 식생활교육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기호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된 숙채, 생채 등 나물류는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기본이 되는 음식으로 건강지향 식단으로서 각광받고 있지만 학생들의 기호가 낮아 단순한 나물 반찬 외에 기호도가 높은 식품 등을 혼합하여 조리하거나, 볶음 튀김 등을 적절히 활용 하는 조리 방법의 개발, 채소와 소스를 따로 곁들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상차림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발달로 학생들이 지방, 단순당, 나트륨 섭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채소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기호도가 낮고 섭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실천 의지가 부족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이 병행 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식생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저학년에서부터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되었다.

학생들의 채소 및 채소음식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채소 기르기 등 노작활동이나, 채소를 이용한 요리실습, 농촌체험 학습 등 생산에서부터 가공, 섭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채소와 친해 질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올바른 식습관의 정착과 채소와 친해 질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는 연령이 낮은 시기부터 미각교육이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식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 및 어머니의 올바른 역할을 위한 부모교육을 병행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실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대상 및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제한점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다른 도시와 농촌 지역의 학생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사 대상자인 초등학교 학생의 기호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설계가 요구되는 바, 이런 제한점들의 개선을 통해 향후 학생들의 채소 섭취 향상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제언해 본다.

참고문헌

Ahn YK, Ro HK.(2009). A survey on preferences for vegetable cooking methods and vegetable-aversion-related factor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s. *Korean J Community Nutr* **14**: 531-544.

An JY, Lee HS.(2002). Assessment of the nutritional value of the plate waste generated in school food services in Kyungbuk Area. *J Korean Diet Assoc.* **8**: 311-317.

Birch L(1987). The role of experience in children food acceptance patterns, *J Am Diet Assoc,* **87**: 536-540.

Choi EH.(2002). Researches on meal management of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nd demand for school meal service and the nutrition education. M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Hwang GH, Jung LH, Yoo MJ.(2001). The eating behaviors, nutrient intakes and hematological status of the lower grade primary school children in Gwangju. *J Korean Society Food and Nutr.* **14**: 293-299.

Jang MN.(2008). The study on eating behaviors recognition, nutrient intakes, and body compositiono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wangju. M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Jun MY, Min HS.(2000). Study on effective methods for reducing leftovers in the food service business & industry. *Korean J Community Nutr* **5**: 92-99.

Kang YS.(2003). Study on preference and food science for advanced intake of vegetables for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food service. M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Korea.

Kim GM, Lee SY.(2003). A study on disposal of food waste and food service management by elementary school lunch program manager in Seoul and Incheon. *J Korean Home Economics Asso* **41**: 39-52.

Kim GM, Lee SY.(2003). A study on disposal of food waste and food service management by elementary school lunch program manager in Seoul and Incheon. *J Korean Home Economics Asso* **41**: 39-52.

Kim MB, Lee YK, Lee HS.(1997). Food behaviors and food preferences of the teenagers in urban, fishing,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7**: 341-354.

Kim MB, Lee YK, Lee HS.(1997). Food behaviors and food preferences of the teenagers in urban, fishing,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7**: 341-354.

Kim MB, Lee YK, Lee HS.(1997). Food behaviors and food preferences of the teenagers in urban, fishing,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7**: 341-354.

Kim MB, Lee YK, Lee HS.(1997). Food behaviors and food preferences of the teenagers in urban, fishing,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7**: 341-354.

Kim MB, Lee YK, Lee HS.(1997). Food behaviors and food preferences of the teenagers in urban, fishing,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7**: 341-354.

Kim MB, Lee YK, Lee HS.(1997). Food behaviors and food preferences of the teenagers in urban, fishing,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7**: 341-354.

Kim MS, Jeon ER, Hwang KH, Jung LH.(2011).

Perception and Attitudes to Leftover Food at School Food Service: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wangju Area. *J Korean Soc Food Sci Nutr* ***40***: 137-147.

Kim MS, Jeon ER, Hwang KH, Jung LH.(2011). Perception and Attitudes to Leftover Food at School Food Service: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wangju Area. *J Korean Soc Food Sci Nutr* ***40***: 137-147.

Kweon NS, Koh BK(2005). Dietary behaviors and vegetable intak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 Daegu and Gyeong-sang buk do. *Korean J Food Cookery Sci* ***21***: 496-504.

박미숙(2008). 초등학생들의 채소류 기호도 및 채소류를 이용한 학교급식 메뉴 선호도 조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경(2007). 경기도지역 도시형과 농촌형 초등학교 학생들의 채소와 어패류의 조리법에 따른 식품기호도 비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혜상, 박명희, 김동주(2005). 초등학교의 영양교육 실태 및 개선점에 관한 연구. **교과교육연구논집**, ***2***, 287-300.